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간 목표 143% 초과 달성

시의회, 市 복지건강국 결산심사
작년 8595명 지원·현장방문 2만건
위기가구 발굴·참사 대응 등 호평
박미정 “지역 돌봄체계 선도모델”

광주광역시가 역점 시책으로 추진중인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지역사회 돌봄체
계의 선도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박미정(더불어민주당·동
구2) 의원은 9일 열린 시 복지건강국 결
산심사에서 “시행 3년 차에 접어든 ‘광주
다움 통합돌봄’이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
다”며 “현장 중심의 접근방식이 지역사회
돌봄의 구조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
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의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대한 2024년도 결산 결
과, 연간 목표 인원 6000명의 143.3%에

달하는 8595명을 지원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2만3328건의 현
장방문이 이뤄졌고, 이 중 7289건은 신청
없는 선제적 방문으로 운둔·위기가구 발
굴에 실질적인 효과를 거뒀다.

광주형 통합돌봄의 지원대상자 8595명
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1인 가구가 전체
의 73.5%(6315명)를 차지하며 압도적으
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전체 지원대상자의 82.3%(7068명)가

노인으로, 1인 가구가 전체의 73.5%인
점을 고려할 때, 고령의 1인 가구에 대한
집중적 돌봄 지원이 요구됐다.

제주항공여객기참사에서 청소·세탁
·식사 준비, 아동 돌봄 등 가사 지원과 식
사 지원 등 총 48건의 서비스를 통해 33가
구 55명을 긴급 지원했다.

정책의 전국적 확산 가능성도 확인됐
다.

지난 한 해 동안 20개 지자체 및 기관이

광주 통합돌봄을 벤치마킹하거나 관련 자
료를 요청했으며 복지부와 국회도 광주
사례를 참고한 제도 설계에 나섰다.

박미정 의원은 “대선 공약에 포함된 ‘국
가책임형 돌봄’은 지역에서 시작되고 현
장에서 완성된다”며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 전국적 모델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
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



市-합동 안전점검의 날

고운순 광주시안전모니터봉사단 연합회장과 안전보안관 등이 9일 광주서구 유스퀘어 광장에
서 ‘市-합동 안전점검의 날’을 갖고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여름철 위험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6~8월 집중신고 기간 운영

광주광역시는 6~8월까지 3개월간 ‘여
름철 재난·안전 위험요소 집중신고 기간’
으로 정하고, 위험 상황이 발견되면 안전
신문고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하고 나
섰다.

9일 광주광역시에 따르면 ‘여름철 집중
신고’는 호우·태풍, 산사태 위험, 폭염, 물
놀이 안전 등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자
연재난과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

호우·태풍 관련 위험 사항 유형에는 △
빗물받이 막힘 △옹벽 붕괴·포트홀 등 시
설 파손 △강풍 위험 △감전사고 대비 전
기시설 위험 등이 있다. 산사태 관련 위험
사항 유형에는 호우로 인한 △비탈면 등
토사 유출 △낙석 위험 △주책가 등 주변
절개지 위험 △위험구역 관리 미흡 등이
있다. 폭염 관련 위험 사항인 △그늘막·무

더위 쉼터·음수대 등 폭염 저감 시설 파손
△작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발견 시 신고
하면 된다. 물놀이 안전 관련 위험 사항인
△인명구조함 등 안전시설 정비 △출입·
관리 미흡 △안전요원 미배치 △물놀이
시설 파손 등도 신고 대상이다.

특히 올해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는 지
난해와 비슷하거나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에 따라 침수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 옆이
나 집 앞 등 주변 빗물받이덮개가 쓰러지
나 흠 등으로 막혀있을 경우 사전에 신고
하면 호우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이나 누리집을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앱에서는 쿼리문의 ‘집중신고’
기능을 활용하고, 누리집에서는 ‘안전신고
-여름철 집중신고’에서 신고하면 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외국인 포
함) 주변의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사진
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정성아 기자

전남도, 외국인 의료 접근성 향상 ‘안심병원’ 운영

이달부터 전남도의사회와 협력 지정
진료비 30% 감면·통역 서비스 제공

전라남도는 외국인주민의 의료 접근성
을 높이고 안정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라남도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외국인주

민 증가율은 18.5%로 전국 1위를 기록했
으며, 이에 외국인주민의 의료 수요도 급
증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
인주민의 경우 병원비 부담이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크고,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필요한 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의사회와 협력해

6월부터 외국인 안심병원을 지정하고, 지
정받은 병원은 건강보험 미가입 외국인에
게 진료비의 약 30%를 감면해 의료비 부
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전남 외국인 통합
지원 콜센터와 연계한 의료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통역 서비스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
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네팔어, 인도네
시아어 등 총 6개 언어로 제공되며, 7월에

는 태국어, 우즈베크어, 스리랑카어, 필리핀
어 등 9개 언어로 확대할 예정이다.

안심병원 지정을 바라는 의료기관은 전
남도의사회 의료봉사단에 신청서를 제출
하면 된다.

전남도는 지정 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지정서를 발급하고, 외국인 환자 통번역
지원 등 사업 운영 전반을 총괄한다. 전남
도의사회 의료봉사단은 진료비 감면 여부
확인 등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오는 18일 ‘전남 외국인주민
의료지원 실무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

해 안심병원 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외국인 주민의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
한 민·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
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
번 안심병원 운영을 통해 의료비 부담과
언어장벽으로 의료서비스 접근이 어려웠
던 외국인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의료지원 협력체계
지속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NEXT K」
2025
콘텐츠산업포럼
2025. 6. 18^{WED} – 6. 20^{FRI} CKL 스테이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